

LUX HUMANITAS

VOL.18. 2014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2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 03 대학다운 미래대학 향한 힘찬 발걸음
- 05 '경희미래리포트' 파일럿 설문조사
- 06 개교 65주년 기념행사
- 08 총장 - 후마니타스칼리지 북토크

FOCUS

- 10 Peace BAR Festival 2014
- 12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 78계단 순위 상승
- 14 <네이처>·<네이처> 자매지 게재 논문 수 증가
- 15 경희대학교 - 삼성전자 산학협력 협약
- 16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 17 내실 강화·인프라 확대로 재도약하는 '의과학 경희'

TODAY

- 18 법인과 대학, 경희 발전 방안 논의
- 20 기숙사 수용률 16.2%로 향상

PEOPLE

- 21 경희 인물 동정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명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KYUNG HEE UNIVERSITY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개교 65주년을 맞은 2014년,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공감과 합의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탐욕과 무책임의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 불씨를 찾기 위해 경희 구성원은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되새기며 대학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했다. 그리고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문명사회에서 대학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탐색했다. ‘경희미래리포트’와 재학생 설문조사, ‘경희미래위원회’를 통해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여정을 시작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 향한 힘찬 발걸음

미래대학의 새 모습 담아낼 '경희미래리포트' 준비
경희의 미래 지원할 '경희미래위원회' 출범



경희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미래리포트'에 담아낼 계획이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경희는 6월 20일, '경희미래리포트' 출범식을 갖고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나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9월 26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경희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앞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대학의 평가지표, 대학의 본질, 2064년 명문대학의 가치와 조건 등의 문항을 포함하는 파일럿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경희 구성원은 자성과 성찰을 통해 대학이 개인과 국가, 사회, 정치, 교육 등 전반에 걸쳐 근원적이고도 총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학생 주도로 대학 교육에 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이 진행됐고, 스승의 날을 반납해 교육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진의 성명서도 발표됐다. 조인원 총장과 학생들이 한국사회를 성찰하고 시민의식의 각성을 위한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희미래리포트'의 출발도 이와 같다. 미래리포트 준비 모임은 취지문 초안을 통해 "압도적인 경제 물신주의의 시대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평형수의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이 이미 오래 전부터 침몰의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이 살아 있어야, 개인과 사회, 국가와 지구사회가 살아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경희는

구성원과 함께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를 '경희미래리포트'에 담아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열린 우주로의 '경희의 미래'

'경희미래리포트' 출범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의 미래가 경희 구성원의 창의적인 상상 속에서 발아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창조적인 사유로 나아가는 것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희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소개된 책(다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시공간 오디세이(Cosmos: A Spacetime Odyssey)>이다. 우주의 원리를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시각적 망상에 빠진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고, 닫힌 사유의 감옥을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 총장은 "경희가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의 망상으로부터 탈출해 시대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주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구를 요청하는 열린 공간이자 현실이듯, 경희 역시 하나의 우주로서 미래 세계를 향한 상상과 성찰이 요청된다. 따라서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과정 자체는 미래를 향한 상상의 여정이며, 진정한 미래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다. 조 총장은 ‘경희미래리포트’가 경희만을 위한 경희가 아니라 이러한 열린 성찰과 창의적 정신을 토대로 하는 보편적 성찰의 힘을 통해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경희는 미래리포트 추진을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여한 준비 모임을 두고 있다. 준비 모임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래리포트 준비 과정을 ‘성찰과 실천의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6월, 파일럿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준비 모임은 파일럿 설문조사 결과와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설문문항을 보완한 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964년 개교 15주년을 기념하면서 당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50여 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아울러 소셜 픽션(Social Fiction, 특정 주제를 놓고 함께 상상해보는 대규모 집단 토크), 독서토론, 미래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형식의 소그룹 세미나, 작품 공모, 설문조사를 진행해 올해 연말 경희미래리포트 1차안을 공개한다. 이후, 내년 영국에서 개최될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제 50차 총회에서 최종본을 발표하고 지구적 대학 혁신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리포트의 추진 계획을 소개한 김재용(경영학부 12학번) 학생은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구성원이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모여 경희미래리포트라는 하나의 실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료기관·사이버대학 공동으로 경희의 미래 지원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담아 완성될 경희의 새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경희미래위원회’다. ‘경희미래위원회’는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해 거교적 성금캠페인을 추진한다. 특별위원회 성격의 ‘경희미래위원회’는 미래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원, 성금캠페인 선도,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태원 미래위원회 사무총장은 “경희의 창학 정신과 미래비전에 공감하는 동문, 학부모, 국내외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경희미래위원회는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경희의 담대한 꿈과 지구적 신뢰의 여정에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도준(의학과 72학번, 동화약품 회장) 동문은 “그간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의 길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위상이 높아졌다”고 전한 뒤 “경희미래위원들이 이를 지원한다면 경희의 꿈이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미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경희 발전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희미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조인원 총장과 최신원(경영학과 72학번, SKC 회장) 동문, 김성호(신문방송학과 65학번) 총동문회장, 윤도준 동문이 위촉됐다. 재계·의료·문인·언론·문화예술·교육·체육계 등에서 초빙한 80여 명의 인사들은 고문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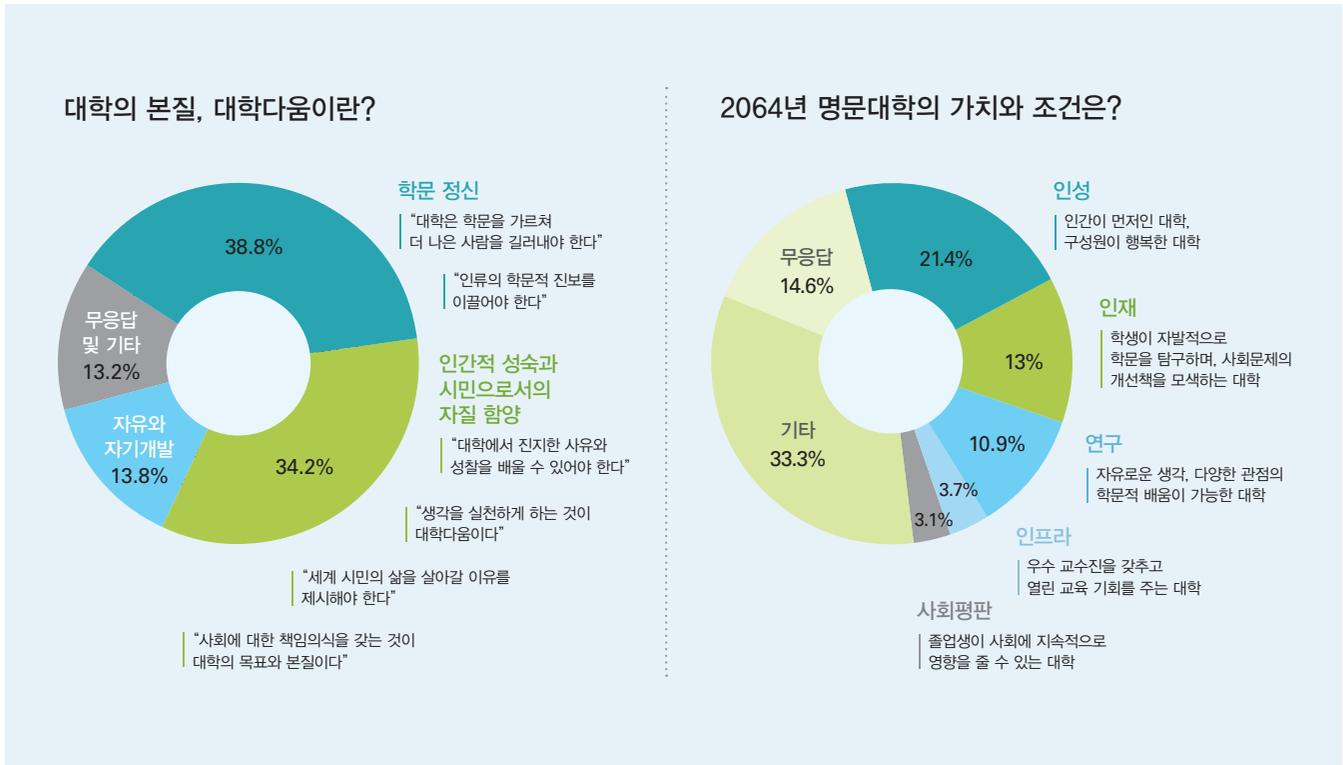
출범 이후 미래위원회는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를 캐치프레이즈로 교육, 연구, 진료, 실천, 인프라를 지원하는 성금캠페인을 펼친다. 글로벌 트러스트는 경희의 창학 정신과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대학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문 기관의 틀을 뛰어 넘어 경희가 사회 신뢰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태원 사무총장은 “경희미래위원회는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본질, '학문 정신'과 '인간 가치 실현'

'경희미래리포트' 파일럿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래대학 평가지표, 대학다운, 2064년 명문대 조건 등 질문



경희는 개교 65주년 기념사업으로 '미래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대학의 새 모습을 담아낼 '경희미래리포트'는 좁은 의미의 대학 혁신론을 넘어, 국내외 대학사회가 참여하는 지구적 교육혁신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찰과 실천의 축제'이다. 그 첫 번째로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재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 문항은 미래대학의 평가지표, 대학의 본질, 2064년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 2064년 명문대학의 가치와 조건, 저항적 자퇴에 대한 의견, 한국 대학이 당면한 문제, 한국 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업의 대학 인수 운영, 남북통일, 세월호 사건 이후 달라진 점 등으로 구성됐다.

"대학 근본 지켜나가야" 의견 다수

미래대학의 평가지표를 묻는 문항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의 가치, 학문의 탁월성,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등 대학 본연의 가치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 교육의 창의성, 강의의 우수성, 대학 간의 국내·국제

적 연대, 학술적 명성이 높은 교수진 등도 미래대학 평가지표로 선택됐다. 대학의 본질에는 학문 정신, 인간적 성숙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꼽은 학생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대학은 근본적으로 학술의 탁월성에 주력하고, 그 성취가 사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후인 2064년 명문대학의 가치와 조건을 묻는 문항에는 인성(인간이 먼저인 대학,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인재(학생이 자발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며, 사회문제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대학)라는 답변이 있었다.

'기업의 대학 인수 운영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57.6%)'라는 답이 '그렇다(30.6%)'보다 우세했다. '아니다'를 선택한 이유에는 '일부 학생이 혜택을 받고 좋을 수도 있지만, 대학이 결국 기업의 논리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도 '기업이 대학 교육의 본래 방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밝혀, 대학의 근본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심·가치 살아 숨 쉬는 미래 '새로운 철인' 필요

개교 65주년 기념행사, '경희의 얼과 미래' 주제
'문화세계의 창조'로 인간·문명의 내일 모색

개교 65주년 기념행사가 5월 19일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 거행됐다. '학문과 평화 65년 - 경희의 얼과 미래, 담대한 변화의 전위에서'를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학생, 교수, 동문,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희는 이날,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에 대한 학술회의를 통해 교시를 재조명하고, 인간과 문명의 내일을 위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모습을 모색했다.

조인원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 시대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양심과 가치를 저버린 시대의 왜곡과 편견, 불의를 넘어서는 '새

로운 철인(哲人)'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념사 첫머리에서 조인원 총장은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세월호 비극을 겪으며 '탐욕과 불의, 부조리, 무책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한 뒤, "양심과 가치가 무너진 현실, 인간이 가야 할 길, 그 길과 현실에 관한 화두를 던진다는 면에서 세월호 참사와 <문화세계의 창조>의 저작 배경은 유사하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와 무책임을 바로잡고 인간 존엄을 회복할 문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교훈이 그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총장은 양심과 가치, 인간존중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삶의 문'을 확장하려는 '새로운 철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총장은 '새로운 철인'을 인간과 사회, 자연과 문명의 전일적 사유로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인간, 인간과 물질의 전도된 지위를 교정하려는 인간, 영혼과 세계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불의를 개선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위해 대학 설립

기념식에 이어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기초발제를 맡은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뜻과 의지 그리고 실천의 세계 - 미원 조영식의 사상과 생애'를 발표했다. 라 교수는 "조영식 박사는 그가 추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구현하는 것은 우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학을 설립했고,



〈문화세계의 창조〉 복간본 발행

개교 65주년 기념으로 리라이팅본과 함께 5월 18일 발간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가 63년 만에 복간됐다. 미원조영식박사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이 발행한 복간본은 개교 65주년을 맞아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돌아보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5월 18일 출간됐다. 기념사업회는 “조영식 박사가 일생 추구하고 실천해 온 평화사상의 원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문화세계의 창조〉라며 “그의 사상적 치열함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복간본에서는 당시의 표현과 문장을 그대로 살렸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문화세계의 창조〉 복간본과 함께 리라이팅본도 출간했다. 리라이팅본은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초판이 출판된 시점의 시대적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현대적 맥락 속에서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반추하는 데 리라이팅본 발행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1951년 한국전쟁 시기에 탄생했다. 조영식 박사는 전쟁 한가운데서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를 성찰했다. ‘전쟁도 파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조영식 박사가 전쟁 중에 제시한 문화세계의 건설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 속에서 배태됐다. 조영식 박사는 대학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이상적 목표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삼았다. 교명을 ‘경희’로 변경한 것도 ‘문화세계의 창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끈 영·정조 시대의 정



〈문화세계의 창조〉 초판본(위 왼쪽)과 복간본(위 오른쪽),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가 새겨진 교시탑(아래).

궁이 바로 경희궁이었기 때문이다. 창학이념인 문화세계 창조의 전통과 함께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경희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문화세계의 창조〉 복간본 발행을 계기로 조영식 박사의 주요 저작을 모아 미원전집을 펴낼 계획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경희의 정신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욱 경희학원 이사는 ‘〈문화세계의 창조〉, 깨어난 상상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이사는 “65년 전, 경희는 청년 조영식이 자신과 전 인류 사회를 향해 던졌던 물음, ‘지구문명의 대붕괴냐,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 이냐’라는 실존적 물음에서 비롯됐고,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는 그 물음에 대한 그만의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영식 박사가 사상을 전개하는 과정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깨어난 상상력’에 기반한다”고 밝힌 뒤, 경희의 얼이 곧 ‘깨어난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세계의 창조〉,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의미 남겨

김민웅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거대 사회적 관점에서 본 〈문화세계의 창조〉’를

발표했다. 그는 “조영식 박사가 우리에게 넘겨준 문명사적 성찰과 교육적 전망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와 마주해 새로운 도전과 의미를 남긴다”고 강조한 뒤, 실천의 장으로 옮겨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세계의 창조〉와 미도(未到)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 김상준 공공대학원 교수는 “조영식 박사는 대립과 분열의 현실에서 그 너머 미도의 민주주의를 봤고, 문화세계를 교육 속에서 우선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경희의 교시가 ‘문화세계의 창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영식 박사는 저서에서 미도의 민주주의

가 이뤄진 문화사회는 대립과 분열, 계급이 없고, 문화발전을 통한 인류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조영식 박사가 품었던 물음을 다시 묻게 하고, 〈문화세계의 창조〉에 담긴 논제가 새 시대의 담론으로 유효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류 문명의 실천적 돌파구를 찾고, 그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이근순(정치외교학과 60학번) 동문은 경희의 학술 발전 연구기금으로 10억원을 기부했다.

틀의 제약과 전횡 극복해가는 열린 의식과 실천 세계로

총장 - 후마니타스칼리지 북토크

조인원 총장 '인간의 길, 정치의 길 - 변화의 전위에서' 특강

개교 65주년 기념 총장 - 후마니타스칼리지 북토크가 지난 5월 27일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누리극장에서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북토크는 조인원 총장과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며 더 나은 인간과 정치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성찰적 주체와 시민의식의 각성, 대학과 후마니타스의 교육이 던지는 질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북토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희대 학생과 서울시민대학 수강생,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참석, 세월호 참사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속에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조인원 총장, "시대·인간의 양심 찾아 공감의 미래 열어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인원 총장은 '인간의 길, 정치의 길 - 변화의 전위에서'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세월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왜곡과 모순, 더 크게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가 들어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조 총장은 '세월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길, 정치의 길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 또 그 실천의 세계를 어떻게 열어가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조 총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문제가 있고, 정치에 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뒤, '틀'에서 벗어나 틀의 제약과 전횡을 극복해가는 열린 의식과 실천 세계의 의미를 강조했다. "틀은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는데, 그

틀은 현대 사회에서 체제와 이념, 제도, 규범, 질서 등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관습과 관행으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범주화된 틀은 그 틀 안에서 모두 옳은 것처럼 보이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완벽한 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안과 현상 보기'에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조 총장은 "왜곡과 모순, 부조리와 불의를 추동하는 틀은 개선돼야 하며, 나와 다른 생각, 타인의 성찰적 인식을 수렴하는 열린 사유의 실천 세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의 양심, 인간의 양심을 찾아서 공감과 합의의 미래를 열어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란 전언이다.

"인간존중의 사회문화가 필요하다"

특강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많은 참석자들이 '우리 안에 세월호 선장의 모습은 없는지'를 성찰하며, 현실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자들은 내 안의 변화, 인간존중의 사회문화를 강조했다.

조인원 총장은 무엇보다 "인간존엄, 인간존중의 가치가 결여된 인습과 관행이 세



월호 참사를 만들어냈다"고 전제한 뒤, "사람에 대한 틀을 재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엔 자신과 타자, 공동체에 대한 심층적 생각과 배려,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배움과 연결시키는 것이 시민교육이자 민주주의라고 전했다.

김정현(사회학과 13학번) 학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올바른 의미의 개인주의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주의에는 개개의 인간은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간존엄의 의미가 포함된다"며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사회에 자리 잡았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지민(경영학과 09학번) 학생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슈나 자신이 개입된 일에만 '우리'라고 생각하고 응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의 정치 위해 대학에서 올바른 삶 사는 방법 가르쳐주길”

변화를 위해 공감과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발표됐다. 시민대학 수강생 송정희 씨는 “우리의 정치적 무관심이 세월호 사고를 사건으로 키웠다”면서 “그 배경에는 탐욕의 정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정치를 위해 나 자신부터 탐욕스럽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한 그는 “대학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

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조인원 총장은 “민주주의 정치는 잘 사는 것과 더불어 사는 것, 잘 죽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교육기관도 이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다양한 실천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불의의 사유 틀 깰 수 있게 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 확대돼야”

세월호 참사 이후 경희에서는 스승의 날을 반납해 교육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진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학생들은 대학 교육에 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업체 관계자,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등을 배출한 교육기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날 토론에서도 탐욕과 불의, 부조리, 무책임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있어 대학과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

조인원 총장은 “공부를 내 삶의 더 큰 성취,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토크에 참석한 학생들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묻고 성찰해야 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생 스스로 생각하고,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배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지향하는 정신이기도 하다고 전한 조 총장은 “대학사회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같은 교양교육 체계를 갖추고, 이러한 배움의 길이 사회적으로 확산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조 총장은 배움의 길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당부했다. 공부를 취업과 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 기술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공부를 내 삶의 더 큰 성취,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과 만나고, 나와 너, 사회의 조화로운 만남을 주선해가는 것이 공부의 참된 의미”라고 강조한 뒤 “배움과 학습을 통해 인간의 더 넓은 세상과 조우하는 길을 함께 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희(약학과 11학번) 학생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이 대학다운 대학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힌 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틀을 깰 수 있게 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 역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인 토론회 아야카(아동가족학과 12학번) 학생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처음 받을 때는 그 의미나 가치를 잘 몰랐는데, 해가 지나면서 수업을 통해 깨닫는 내용이 많아졌다”면서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전공지식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현 학생은 “총장님 특강 중에서 ‘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고,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 33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4가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다.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UN이 제정, 선포한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Peace BAR Festival은 ‘학술과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모색하는 학술·문화 축제다. 올해는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Cosmic Humanity and Public Practice)’을 주제로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인간과 문명을 새롭게 조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적 실천의 의미를 성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평화·안보는 사회 진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행사는 21일 국제캠퍼스 천문대에서 개최된 공개 관측회로 시작됐다. 이후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북토크가 이어졌으며, 사전행사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0월 19일까지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 시공간 오디세이(Cosmos : A Spacetime Odyssey)>,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모스>, 데이비드 크리스천의 저서 <빅 히스토리(Big History)>, 조영식 박사의 저서 <오토피아(Oughtopia)>에 대한 감상문, 동영상, 사진도 공모했다.

개회식은 22일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 대학 A&D 홀에서 개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평화와 안보는 사회 진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토대”라고 강조한 뒤 평화를 막는 분쟁의 근본 원인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평화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긴 여정”이라며 “모든 사람이 평화가 인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마음속에 평화를 간직하고 소중히 키워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세계의 근원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의 세계는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더 나은 지구촌 생존과 번영의 길을 위해 국경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Peace BAR Festival 2014, 9월 18~26일 개최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인간·문명 조망, 공적 실천 성찰

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넘어설 인류의 공유된 철학과 신념, 공적 실천의 토대가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적 상상력으로 인식 혁명해야”

개회식에 이어,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우주, 인간, 문명 : 우주관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인간관을 만나 인간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주

적 관점에서 인간과 문명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동욱 경희학원 이사는 “인간은 138억 광년 너머의 우주 끝자락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과학혁명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혀왔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며 “그 무지함으로 문명을 돌이킬 수 없는 과국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이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탐욕과 이기심을 꼽은 그는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 내면의 인식 혁명이 필요하다”고 전한 뒤 “이를 가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평화와 안보는 사회 진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토대”라고 전했다.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은 ‘위기 속에서 희망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과 교수는 “인류의 기원을 살펴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을 통해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상을 통해 더 큰 픽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문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경제 논리에 따라 오늘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초국적 기업”이라며 “인류, 대학, 공적 실천의 미래를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경제, 기업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빅 히스토리 와 지적 감수성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생태(ecology)”라면서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금실 전 장관은 “우주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우주 빅뱅에서 시작됐고 유일한 그 힘을 인간이 나눠서 갖고 있는 것인데, 문명에서는 권력을 유일한 힘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권력의 문제를 절제와 겸손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류 멸종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게 하는 것이 우주적 관점에서의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의 위기에서 희망 만들어내는 인간

근대 이후 산업 문명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생태계 위기,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류와 문명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은 ‘위기 속에서 희망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은 인간은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으며 인간과 우주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결돼 있다고 한 칼 세이건의 주장을 소개한 뒤, 인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는 “인간 본성은 내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와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인간은 내부 행복 추구가 이타적 공적 활동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치들이 인류의 미래”라며 “자신의 존재와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력으로 그 가능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인간은 꿈꾸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에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의 가치 우선하는 정치 필요”

이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한 참가자들은 인간의 기원과 진화 과정에서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공학

〈코스모스〉 읽고 인류·지구 미래 논의

Peace BAR Festival 2014는 9월 26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북토크로 막을 내렸다. 북토크에서 학생들은 칼 세이건의 서적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북토크는 도정일 대학장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도정일 대학장은 “인간과 문명의 미래는 우리의 시야, 지적 지평선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학생들에게 시야를 지구 밖으로 넓힐 것을 요청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책 읽기’를 제안했다.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목적은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한 그는 “우리에게 대학, 한국, 지구 너머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코스모스〉와 같은 책을 통해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78계단 순위 상승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

〈네이처〉·〈사이언스〉 등 국제논문 게재 수 증가
경희 논문 세계적 인용 빈도도 증가
학술 지표 순위 상승, 대학 핵심가치 구현 노력 결과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와 QS 대학평가, 라이덴랭킹, 네이처 퍼블리싱 인덱스,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올해 발표된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해온 경희의 노력이 학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4 중국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지난해보다 78계단 상승한 372위, 국내 7위(종합대학 5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는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 수가 증가하고, SCI(E), SSCI 논문의 양적 지표와 피인용 지표의 점수, 순위가 모두 상승해 학술 역량의 양적·질적 성장이 확인됐다.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에 서 경희의 졸업생 평판도와 논문당 피인용 수 순위는 지난해보다 5계단, 18계단 상승해 43위, 68위에 올랐다. 연구 부문 지표인 논문당 피인용 수와 교원당 논문 수를 비롯해 교원당 학생 수 순위도 상승했다. 이는 경희의 학술적 탁월성과 높아진 위상을 말해준다. '2014 QS 대학평가' 종합 순위는 세계 275위, 아시아 37위, 국내 8위(종합대학 6위)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4 라이덴랭킹' 국내 대학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했다. 〈네이처〉출판그룹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 평가인 '네이처퍼블리싱 인덱스' 순위도 전년 대비 32계단 큰 폭으로 뛰었다(올해 5월 5일 기준).

졸업생 평판도 순위 상승세 지속

'QS 아시아대학평가' 졸업생 평판도에 서 경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1위에서 매년 33계단, 5계단 올라 올해 처음으로 40위권에 진입

했다. 명성과 관행적 통념 등의 영향으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는 졸업생 평판도가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올해는 졸업생 평판도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17.6점 올라 졸업생 평판도에서 국내 10위 안에 오른 대학 중 한양대(19.9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졸업생 평판도 상승은 졸업생의 업무 능력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교원당 학생 수도 순위가 상승, 지난해보다 5계단 오른 28위를 차지했다. 교원당 학생 수는 졸업생 평판도와 함께 교육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순위가 상승해 교육 수월성을 재확인했다.

연구 질적 수준 평가 지표 순위 상승

논문당 피인용 수와 교원당 논문 수, 기술이전 수입액 등 연구의 질적 평가 지표에서도 경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QS 아시아대학평가' 논문당 피인용 수는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해온 경희의 노력이 '2014년 발표된 대학평가' 결과를 통해 학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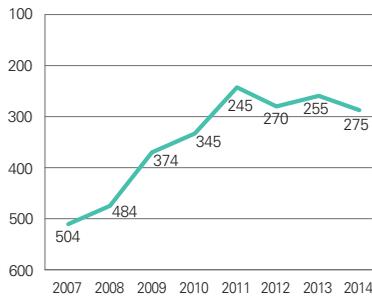
지난해 32계단 오른 후, 올해 18계단 상승해 68위에 올랐다. 논문당 피인용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는 전년 대비 17.6% 증가해 교원당 논문 수는 지난해보다 28계단 상승했다.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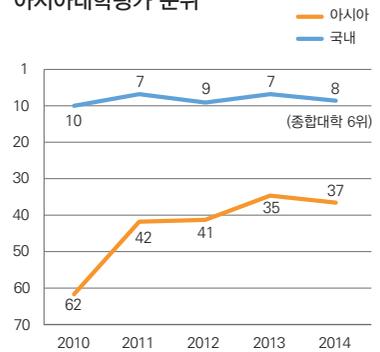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수, 교수당 기술 이전 수입액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수는 2012년 14위, 2013년 11위, 올해 9위로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영·영어·정치외교 최상위 학과 선정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는 생명과학·의학, 인문·예술,

세계대학평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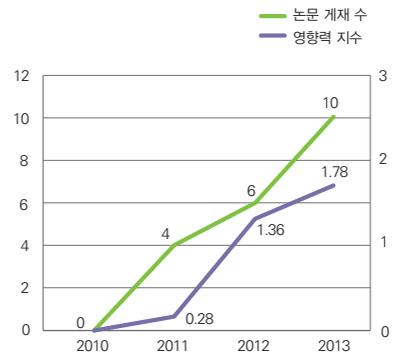
아시아대학평가 순위



졸업생 평판도 순위



〈네이처〉 및 〈네이처〉 자매지 논문 게재 수 및 영향력 지수



사회과학·경영, 자연과학 분야에서 100위 안에 드는 성취를 거뒀다. 생명과학·의학 분야는 아시아 39위, 국내 7위를 차지해 강세를 보였다. 인문·예술 분야는 아시아 52위(국내 8위), 사회과학·경영 분야는 아시아 63위(국내 10위), 자연과학 분야는 아시아 91위(국내 9위)에 올랐다.

경영학부, 영어학부, 정치외교학과 등 3개 학과는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영어학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고, 정치외교학과는 전국 47개 학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간호학과와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공학과는 상위권, 중국어학과와 행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파공학과, 응용물리학과는 중상위권에 올랐다.

생명과학·사회과학 논문 인용 최상위권

'라이텐랭킹'에서 경희는 올해 인용 빈도 상위 10% 내 논문비율 6.5%로, 국내 대학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라이텐랭킹'

은 대학 논문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10% 내 논문비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수리·컴퓨터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서 국내 10위 내에 랭크됐다. 특히, 생명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각각 국내 5위를 기록해 최상위권에 올랐다.

세계적 수준 논문 발표 횟수 늘어

〈네이처〉와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논문을 기초로 산정, 논문의 공저자를 파악해 해당 대학 기관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퍼블리싱 인덱스'에서도 경희의 순위가 상승했다. 국내와 세계 순위가 각각 3계단, 32계단 올라, 국내 10위, 세계 82위를 기록했다. 영향력 지수는 2011년 0.28에서 2013년 1.78로 6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는 2011년부터 〈네이처〉 이외에도 〈사이언스〉, 〈셀〉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네이처〉·〈네이처〉 자매지 게재 논문 수 증가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10건으로 점차 확대
 응용물리학 최석호, 물리학 권영균, 화학공학 박범준, 원자력공학 김형대 교수



세계적 학술지에 경희의 연구 성과가 소개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희가 〈네이처(Nature)〉와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한 논문 수는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10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네이처〉 자매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팀은 높은 광반응 성능을 지닌 그래핀 광검출 소자를 개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월 12일자 온라인판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지난해 ‘올(All) 그래핀 p-n 수직접합 터널링 다이오드’를 개발한 최 교수는 이를 광검출 소자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최석호 교수는 “올 그래핀 p-n 수직접합 터널링 다이오드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기기의 광검출소자뿐 아니라 투명하고 휘어지는 LED와 태양전지 등 다양한 차세대 광전자소자에 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리학과 권영균 교수 연구팀은 전자회

로와 포토닉스(광자를 이용한 기술)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소자를 개발,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3월호에 논문을 발표했다. 권 교수 연구팀은 탄소 나노튜브와 실리콘으로 이뤄진 접합 소자에서 독특한 비선형 광전류 특성을 발견하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권영균 교수는 “탄소 나노튜브-실리콘 접합 소자는 전압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전기 신호가 급격하게 변화해 장치가 신호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온·오프(on·off)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땀구멍 지도’를 인식하는 새로운 지문분석 기술을 개발한 화학공학과 박범준 교수의 연구 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4월 29일자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 내용은 5월 8일자 〈네이처〉에 소개되기도 했다. 연구팀은 물에 의해 색이 변하는 수변색 고분자 물질을 통해 손가락 끝 땀샘에서 나오는 미량의 수분을 빠른 속도로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땀구멍 지도를 만

드는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다. 박범준 교수는 “사람마다 다른 땀샘을 갖고 있듯이, 개인의 땀구멍 패턴 역시 다르다”고 설명한 뒤, “개인의 땀구멍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자력공학과 김형대 교수 연구팀은 비등 열전달 상황에서 나노신소재인 그래핀을 활용하면 열전달 효율과 한계점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그래핀에 의한 열소산 능력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는데, 이 과정에 김형대 교수가 보유한 ‘적외선 열화상 기법’이 활용됐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9월 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형대 교수는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집적도가 높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자력 분야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희대학교 - 삼성전자 산학협력 협약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등 합의 연구·인프라 공유해 융복합 학술역량 강화

경희대학교와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30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르네상스홀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경희대는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융복합 학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원 총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그간 경희는 교육, 연구, 실천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사회, 인류와 문명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목표로 해왔고, 교내외의 연계·협력을 통한 클러스터를 준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희는 인류 문명, 미래과학, 문화예술, 바이오헬스, 사회체육 등 5개 중점 분야에 연계협력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내외에서 더 큰 연계·협력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양 기관의 발전은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은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성공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협약을 통해 경희와 삼성전자는 연구와 인프라를 공유·활용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삼성전자 DS(Device Solution)부문 소속 우수 임직원의 경희대 겸임교원 위촉, 경희대 우수인력 양성 지원, 삼성전자 DS부문 유휴제원 내 실습기자재와 장비 기증·지원,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 재교육을 위한 경희대 평생교육원 시설과 강사·프로그램 이용,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발전적 협력을 위한 세부 내용은 향후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협의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을 기념해 31일에는 국제캠퍼스 평화노천극장에서 ‘경희대학교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2014 평화콘서트’가 개최됐다. 콘서트에는 경희 구성원과 삼성전자 임직원, 지역주민 8,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선정

144개 대학 중 2위
기술이전전담조직·
IP Portfolio 전략으로
기술이전 향상

경희대학교가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대학 부문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을 수상했다. 150개 평가 대상 대학 중 144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서울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경희는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을 설치, 운영해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이전 실적 향상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2011년 5월,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계기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활성화 시킨 경희는 2012년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이 2011년보다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술이전 수입료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도 ‘IP Portfolio 전략’을 수립해 표준특허 설계와 기술이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를 통한 매출 증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매출 신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은 공공연구소, 대학,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 활용률과 기술사업화 수익률을 평가해 선정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술 매매와 이전 건수, 기술 창업 건수, 연구개발 생산성, 기술로 수입, 누적 기술이전 수익 등이다. 이번 평가는 2012년 실적을 토대로 실시됐으며, 공공연구소, 대학, 금융기관 각 3개 기관, 총 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융합형 글로벌 인재·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2개 사업단에 매년 17억원 최대 5년 지원



경희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국제학·정치외교학’, ‘지리학·사학’의 학문 간 융합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2개 사업단이 선정, 매년 17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가 융합한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단장 국제학과 박한규 교수)은 국제화 분야 발전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목

표는 실무 능력과 더불어 경희의 창학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실천’의 전통을 구현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박한규 교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천 역량을 가르치는 것은 경희만의 강점”이라며 “사업단은 경희의 강점을 살려 창학정신과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4x4 인증 프

로그램’을 도입했다.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창의적 융합형 사고, 현장형 실무능력, 사회적 책임 등 4대 핵심역량을 집중 육성하는 4개 유형(글로벌 시민사회, 글로벌 격차 해소, 글로벌 협력, 글로벌 비즈니스)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사업단은 향후 5년간 특성화 사업에 맞는 교과과정과 글로벌 역량 강화, 인턴십, 해외 우수 대학과의 전공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 특성화 사업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단장 지리학과 황철수 교수)은 데이터 수집·추적, 분석, 해석, 시각화, 스토리텔링을 아우르는 ‘시공간 빅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황철수 교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빅 데이터가 출현할 미래에는 빅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리학과와 사학과가 융합해 추진한다. 전문 교육을 위해 특화 과정으로 ‘트랙’을 도입했다. 트랙은 학년·학기별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사학과와 지리학과 학생들이 융합된 형태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빅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 수혜 비율도 늘렸다. 황철수 교수는 “특성화 사업 선정에 따른 재원은 모두 학생들에게 투입된다”고 말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최우수’ 대학 선정

학생부 중심 평가·전형 간소화·고른기회 확대 높은 평가

경희대학교가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최우수 대학에 선정돼 3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사업에서 경희는 논술과 수능 위주의 신입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논술 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 방법을 간소화한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설계해 정원 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한 점과 학업적

성면접을 폐지해 입시생의 부담을 줄인 점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현 입학처장은 “경희대는 2007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시범대학 선정을 시작으로 7년 연속 선대대학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번 최우수 대학 선정은 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고교와 연계가 잘된 대학, 고교연계형 대입전형을 충실히 운영한 대학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희는 지원금을 고교와 대학의 실질적인 연계와 대입정보 제공, 평가 인력의 전문성 제고, 특히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내실 강화·인프라 확대로 재도약하는 ‘의과학 경희’

국내 최초 한방·치과 의료기관 인증 획득으로 대외 위상 높여
문화복지시설 착공·‘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 추진



경희 의료기관은 ‘의과학 경희’ 재도약의 의지를 담아 경희의료원 전면 우측과 좌측에 ‘문화복지시설’과 ‘암병원’을 신축한다. 사진은 문화복지시설.

최근 경희 의료기관은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재정비를 통해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에 나섰다. 지난 2011년 경희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과 8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대외 위상을 높였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관리 능력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한방과 치과 부문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4년이다. 한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과 함께 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개소해 한의학에 대한 안전성,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끌 계획이다. 5월 29일에 문을 연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지난해 선정된 보건복지부 국책 과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다.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시스템, 장비구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문화복지시설과 암 치유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가칭)’도 건립한다. 경희대학교 청운관과 경희의료원 사이에 건립되는 문화복지시설은 구성원과 환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된 건물에는 북카페, 기념품점,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대학 정문 바로 옆인 문화복지시설 부지는 대학의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구성원의 소통과 만남,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이 이뤄지는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경희의 역사와 전통, 캠퍼스 이미지, 비전 등을 고려해 상징성 있는 건물을 설계했다. 사선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으로 역동성을 살린 문화복지시설에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실현하겠다는 경희의 의지가 반영됐다.

‘암병원’은 ‘암을 넘어선 삶, 조화와 균형의 사회’를 추구하며, 인문학, 예술, 체육

분야가 융합된 치유 프로그램을 진료 및 치료 과정에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 연구기관을 지향한다.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암병원은 암 치료를 수술과 항암치료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라며 “암환자들에게 암 치료를 위한 진료 프로그램 뿐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치료를 병행해 암으로 무너진 개인의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대학(원), 사이버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료·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암병원은 경희의 강점인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신의학 ‘통합 종양학’도 도입한다. 양한방 협력하에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암병원은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에 맞춘 협진 의료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암병원은 의료원 전면 좌측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법인과 대학, 경희 발전 방안 논의

대학 초청 이사진 간담회, 법인 이사진과 재정·현황·목표·전략 공유
 조인원 총장, “법인과 대학이 협력해서 더 큰 미래 열길”

대학 초청 이사진 간담회 ‘경희의 현황과 전망’이 지난 8월 29일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열렸다. 법인 이사장 등 이사진 7명, 총장 및 교무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는 ‘경희의 위상과 재정: 정상을 향한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법인과 대학이 경희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였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이 자리가 앞으로 법인과 대학이 협력해서 함께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경희의 위상과 재정, 현황, 목표, 전략 발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재정 확충 위해 등록금 외 수입 확대 방안 모색·추진 중

경희는 그간 대학 핵심가치 구현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왔다. 국내 대학뿐 아니라 세계대학과 아시아대학평가 순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 200위권, 아시아 30위권에 올랐다. 특히, 교수당 국제 논문 수와 피인용 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판도 역시 200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교수 업적 평가 제도를 개선해 학술 진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연계협력 클러스터 구축,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개방적

통합학문을 추구할 계획이다.

경희는 적정 적립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대학예산 운영 철학을 견지하면서 등록금 외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년간(2006~2013년) 교육과 연구 분야에 396억원(연평균 49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8년간 교원인건비(교원임용 등) 37.5%, 실험실습·학생지원비 57.8%, 연구비 28.3%, 행정지원 21.7%가 증가했다. 경희는 그간 윤리적 예산 운영과 함께 수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등록금



의존율은 2006년 77%에서 2013년 71%로 낮아진 반면, 산학협력단 전입금, 국고 보조금 등 등록금 외 수입은 증가했다. BK21 플러스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국고 보조금은 8년간 5배 이상 늘었다. 반면, 기부금 수입과 법인 법정부담금은 타 수입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

“법인 자산 유동화로 신규 재원 확충”

간담회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등록금 외 신규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 이사들은 재정사업 추진 시 대학은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법인 소유 부지의 장기임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법인 토지를 장기임대해 기업과 대학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원 마련과 함께 대학과 기업이 Win-Win하는 전략과 국제캠퍼스에 벤처밸리를 만들어



대학 초청 이사진 간담회에서 법인과 대학이 경희의 발전을 위해 소통했다.

임대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경희에는 활용 가치가 높은 유·무형 자산이 많고, 다른 대학에서 사업화하는 부분을 우리도 시작하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비학위과정 등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정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KMC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টে을 논의했다”면서 “KMC에서 다양한 재정 사업 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부금 확대 위해 체계적 모금 활동, 평판도 향상시켜야”

법인 이사들은 기부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인 모금 활동, 유증(자산의 이전 내용을 유언장에 명시하는 것) 운동과 같은 유산 기부 활동 등을 제시했다. 유증 운동은 공증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조언했다. 체계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과 관련해 이태원 미래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학, 의료기관, 사이버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금캠페인을 추진할 미래위원회에서는 선도적인 기부금 모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부금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유산 기부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판도 향상이 기부금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인 이사들의 의견도 있었다. “경희는 지난 8년간 교육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고, 외부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옳은 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평판도가 그에 걸맞지 못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평판도 향상은 기부금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동문의 참여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스타성 있는 교수와 학생 충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부 학문 분야 강화 전략을 제안했다.

법인 재정위원회 신설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 또한 형성됐다. 정진영 부총장은 “세계 정상급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는 현 예산의 2.2배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위원회를 통해 법인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 속에 법인 자산 운용과 대학 재정사업, 기부금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진은 “법인의 기능은 첫 번째, 장학 이념을 이어가는 것, 두 번째는 대학에 진출금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인과 대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인 재정위원회는 범 경희 차원의 재정 사업을 진행해 경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 역할을 하게 된다.



기숙사 수용률 16.2%로 향상

926명 수용하는 공공기숙사 2016년 완공 목표
이문동·회기동 신축 기숙사 완공, 학생 124명 입주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선정으로 경희는 기숙사 3개 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2016년 완공될 운동장 기숙사.

서 울캠퍼스 행복기숙사(공공기숙사) 2개 동이 완공됐다. 지난 2012년 6월, 정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된 경희대는 이문동(약학대학 옆), 회기동(농촌경제진흥원 옆), 대운동장 부지에 기숙사 3개 동을 건립한다. 이 중 이문동, 회기동 기숙사가 완공돼 지난 2월 말, 124명의 학생이 입주했다.

이번에 신축된 이문동 기숙사는 여학생 전용 공간이다. 지하층을 포함, 9개층 규모에 수용 인원은 73명이다. 2인 1실 숙소 32실 외에 장애인실을 포함한 9개의 1인실이 따로 마련됐다. 회기동 기숙사는 남학생 전용 공간으로 지하층을 포함, 6개층 규모에 수용 인원은 51명이다. 2인 1실 숙소 25실, 장애인용 숙소 1실로 구성됐다. 기숙사비는 1인실 월 24만원, 2인 1실 월 19만원(수도, 전기, 가스 등 수도광열비 개별 부담)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평균 34만원)보다 36%

이상 저렴하다. 기숙사생은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의 국가시책에 따라 학점 또는 거리보다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자를 우선 선발했다. 학생 요구에 따라 기숙사 신청 대상 지역에 경인지역도 포함시켰다.

운동장 공공기숙사 사업은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과 동시에 진행되며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926명이 입주하게 될 운동장 기숙사가 완공되면 서울캠퍼스 기숙사는 2,616명(현재 1,690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돼 기숙사 수용률이 10.5%에서 16.2%로 향상, 학생만족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대는 저리의 공공기금 지원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신청했고 수도권 대학 최대 규모인 23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 행정고시 최다 합격생 배출

재학생 4명·졸업생 4명
합격자 대학 순위 6위

2013년 행정고시에서 재학생 4명, 졸업생 4명 등 총 8명이 최종 합격했다. 경희는 2012년보다 합격자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대학별 행정고시(기술직 제외) 합격자 배출 대학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2013년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재학생들은 평균 2년~2년 6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해 결실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경희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50명 정원의 행정고시반을 운영 중이다. 행정고시반 지도교수인 행정학과 김도한 교수는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공존하고, 외무고시도 2013년에 폐지되면서 행정고시는 학력과 나이 제한 없이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으로 남게 됐다”면서 “이 같은 배경에 따라 행정고시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시반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기숙사나 장학금, 열람실, 인터넷 강의, 스터디, 특강,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부터는 1·2차 합격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차 시험 필수 과목의 교수를 초빙, 모의시험 및 강평을 실시하고, 3차에 대비한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도 부여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유미(행정학과 09학번) 학생은 “고시반은 다양한 지원으로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선배, 동기들과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은 행정고시반 열람실.

공영일 명예교수, 미원조영식박사기념사업회 위원장 임명



공영일 명예교수가 미원조영식박사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공영일 명예교수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 영어학 석사, 경희대 영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경희대 교수로 임용됐고, 1993년부터 4년간 경희대 총장을 지냈다. 미원조영식박사기념사업회는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생애 업적과 철학을 조망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군태 교수, 서울부총장 임명



언론정보학과 한군태 교수가 서울부총장으로 취임했다. 한군태 신임 서울부총장은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에서 저널리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언론정보학부장, 언론정보대학원장, 정경대학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호 동문,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장 선출



김성호(신문방송학과 65학번) 동문이 제27대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성호 신임 회장은 경희대 졸업 후 한국방송공사,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 1988년 (주)제양항공해운을 창업했다. 현재는 제양항공해운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상만 교수, 재정경영원장 임명

경영학부 김상만 교수가 재정경영원장에 임명됐다. 김상만 원장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네브래스카대 링컨캠퍼스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학경영학회 편집위원, 지식경영학회 이사, 국제지역학회 이사, 병원경영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제임스 후퍼·한재훈·권예하·이유민·김신중 학생, 웃는 사자상 수상

제임스 후퍼(지리학과 10학번), 한재훈(일반대학원 전자전파공학과 석사 1기), 권예하(언론정보학과 10학번), 이유민(국제학과 12학번), 김신중(경영학과 09학번) 학생이 '제1회 경희 웃는 사자상'을 수상했다. '웃는 사자상'은 학술연구, 사회공헌, 문화예술 등의 부문에서 창의이념과 미래비전을 구현해 더 나은 미래 건설에 기여한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을 발굴·선정하는 상으로, 개교 65주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웃는 사자상은 매년 5월 개교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수여됐다.

김인한 교수, 건설산업 파워 엘리트 50인 선정

건축학과 김인한 교수가 <건설경제>에서 창간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건설의 현재를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제시할 파워 엘리트 50인'에 뽑혔다. '건설서비스 인프라 부문 - 연구그룹'에 선정된 김 교수는 컴퓨터 3차원 설계기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국내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영상 학생,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상 수상

의학전문대학원 유영상 학생(08학번)이 '2014년 제1회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한 공로자에게 수여된다. 유영상 학생은 희귀난치성질환 아이들을 돕고, 1% 나눔운동 추진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용대 교수 연구팀, 보건복지부 질병중심 중개중점 연구개발사업 선정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권용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도 상반기 보건복지부 질병중심 중개중점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생체활성 나노융합 신소재 기반 골재생 기술 개발' 연구과제로 사업에 선정된 연구팀은 3년간 12억원을 지원받는다. 권 교수는 "골재생 융합 연구는 골다공증과 같은 골질환 치료기술 개발에 기반 연구가 될 수 있다"며 "경희대학교 연구자들의 유기적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골재생 융합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상문·김영도·서지혜·추현실·허경준 졸업생, 매그놀리아 인증제 1호

지난 2월 졸업한 고상문(영미어학부 07학번), 김영도(건축공학과 11학번), 서지혜(생체공학학과 10학번), 추현실(한약학과 10학번), 허경준(10학번) 학생이 매그놀리아 인증제 1호로 선정됐다. 경희는 학생 개개인의 학술적 성취가 타인과 사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매그놀리아 인증제를 도입했다.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비교과 활동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기준에 도달하면 마지막 학기인 8학기에 매그놀리아 인증과 활동지원비(등록금 범위 내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박희수·이민규 학생,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대상 수상

국제학과 박희수·이민규(11학번) 학생이 7월 2일부터 4일간 열린 '제20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UN)회의'에서 대상(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는 학생 대표들이 추첨을 통해 결정된 국가의 유엔대사가 되어 안보, 인권, 군축, 개발 등의 의제를 두고 외교 역량을 겨루는 자리다.

유명철 석좌교수 발전기금 2억원 기부



의학전문대학원 유명철 석좌교수가 3월 25일,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유명철 석좌교수는 경희학원 통합 성금 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를 통해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나머지 1억원은 내년 중 경희암병원 신축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윤영석 동문 발전기금 2억원 기부



윤영석(한의학과 77학번, 춘원당한방병원 병원장) 동문이 10월 16일, 발전기금 2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1억원은 15일에 기부했고, 나머지 1억원은 약속을 약속했다. 윤영석 동문은 "경희대가 있어서 한의사를 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서 "대학에서 받은 것의 일부를 되갚아서 후배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동문으로서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회 경영대학원 재학생 발전기금 1억원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철회 세이펜전자 대표이사가 10월 2일,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개교 65주년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철회 대표이사는 "30여 년간 사업을 해왔는데, 경희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사업가로서 날개를 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기·김성훈·유재수 교수, '2014 경희 Fellow' 임명

호텔관광대학 관광학과 이창기 교수, 대학원 기초한의학과 김성훈 교수,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유재수 교수가 '2014 경희 Fellow'에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대형사업단 운영과 국책사업 수주를 통해 탁월한 연구 업적을 창출해왔다. 이창기 교수와 김성훈 교수는 세 번째, 유재수 교수는 두 번째로 경희 Fellow에 임명됐다. 경희 Fellow는 학문적 성취를 존중하는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14 경희인의 밤

개교 65주년 기념 '2014 경희인의 밤'이 5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경희대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교 65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조인원 총장과 김성호 총동문회장, 김용철 이사장 등 1,0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희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한 뒤,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인원 총장은 축사에서 "개교 65주년을 맞아 경희의 교사이기도 한 '문화세계의 창조'를 재조명하면서 인간과 문명의 내일을 위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모습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총동문회장은 "모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26만 동문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5월 15일 크라운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독특한 한국 문화 체험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경험한 게임 문화를 발표한 경희대 국제교육원 입학특 오네계(카자흐스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38개국 1,232명의 외국인이 예선에 참가했다. 이 중 12개국 15명이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치과의사 국가고시 100% 합격

제66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2013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졸업

생생 77명이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함께 시험을 치른 2010학년도 치과대학 졸업생 1명과 2012학년도 치전원 졸업생 1명도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경희사이버대 홍릉캠퍼스 개관



경희사이버대학교 홍릉캠퍼스 'ACAPEACE'관이 5월에 개관했다. '홍릉밸리'에 위치한 사이버대 홍릉캠퍼스는 인근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21세기가 요구하는 융·복합 분야를 창출하는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실천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시민대학과 미래변화경영과정(비학위)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 분야

R&D사업 신규과제 최다 선정

한의학대학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4년 한의약 분야 R&D사업에서 18개 과제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에 선정됐다. 5월 21일 발표된 한의약 분야 R&D사업 신규과제 공모 결과, 경희대 한의과대학 기초 및 임상 교수진은 총 4개 분야 7개 과제에 선정,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양·한방 융합 기초연구 부문에 선정된 '양·한방 병용투여를 통한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 및 간암 신규 치료전략 개발(연구책임자 : 한방1내과 이장훈 교수)'과 한의약선도 기술개발 부문에 선정된 '한약 알레

르기 진단키트 개발(연구책임자 : 한방2내과 정우성 교수)' 과제는 각각 3억원을 지원받는다.

한의학교육평가 '5년 인증'

한외과대학이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받았다. 한의학 교육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의 졸업생은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경희대 한외과대학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았다.

2014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2014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8월 22일 광릉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경희의 역동·연계와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위한 역동성을 살려내는 방안으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찬회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부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언어연구> SCOPUS 등재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언어연구(Linguistic Research)>가 올해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돼 국제학술지로 인정받게 됐다. 국내 어학분야 학술지가 스코퍼스에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어연구>는 스코퍼스 학술지 선정위원회로부터 "국제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논문 저자들로 편집위원이 구성돼 있으며, 실득력 있고 명확한 편집 방침을 통해 훌륭한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동문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9월 2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매년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총동문장학회는 올해 학부생 32명, 대학원생 7명 등 총 39명에게 장학금 8,55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증서를 받은 주재

익(사회학과 10학번) 학생은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듯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희대학교 총동문회는 1992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1999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금적립을 확대해왔고, 1992년 총동문회명의 장학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55명의 학생에게 13억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남대부 단체·여대부 개인 금메달



양궁부가 '제32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에서 남대부 단체전과 여대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마지막 날 남대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희대는 계명대를 세트승점 5대3으로 제압하고 4연패를 달성했다. 전홍영(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학생은 여대부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양궁부는 여대부 단체전과 남대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센터'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센터(센터장 : 화학공학과 김우식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4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학 분야 센터(ERC)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경희는 최대 7년간 매년 15억원, 총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센터는 자기조립과 분자인식 기반의 결정 설계 기술 연구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칙적 유도체성을 이용한 결정 기능화 공정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나아가 원천기술을 상용화해 직접적 기능성 결정소재 전문 연구센터 완성을 목표로 한다.

경희 오픈 캠퍼스 전공체험교실

경희 오픈 캠퍼스 전공체험교실이 7월 26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경

희대대학교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매년 오픈 캠퍼스 전공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진로전문가와 선배가 들려주는 전공 선택, 단과대학별 전공체험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사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전공체험교실을 선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올해는 전국 고등학생 1,600여 명이 참가했다.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초청 특강**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초청 특강이 5월 8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한인 인맥으로 알려진 김동석 상임이사는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강연에서 '워싱턴에서 한·중·일 바로 보기'를 주제로 최근 한국의 외교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한국이 점차 낭비와 오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서 "21세기 초엽 구축한 민족의 역량을 잘 보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이 낭비와 오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환경안전트랙 설명회



공과대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는 5월 16일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411호에서 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체결한 '삼성 환경안전트랙(이하 환경트랙)'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환경트랙에서는 삼성전자 DS 사업부 3명, 삼성디스플레이 2명 등 총 5명을 선발한다. 환경트랙에 선발된 학생은 지정된 환경공학과정 8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방학에는 인턴근무를 통해 실무능력을 키워 환경안전분야의 전문가로 훈련받는다.

2014 석학 초청 특강

이정식 경희대 석좌교수(Eminent Scholar) 겸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를 초청, 4월 29일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2014 석학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정식 교수는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을 주제로, 한국의 독립사상이 중국 중화(中華)질서와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어떤 진화의 여정을 열었는지 되짚으며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길을 제시했다.

2014 석학 대담 시리즈

'2014 석학 대담 시리즈'가 7월 7일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누리극장에서 열렸다.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담에는 마이클 퓨엣 하버드대 교수(경희대 인터내셔널 스칼라)와 존 리버클리대 교수(경희대 인터내셔널 스칼라), 유종성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교수 등 세계 석학들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홍콩 등 다양한 국적의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 참여 학생과 경희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APAIE 총장 라운드테이블

'2014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협회

회의(APAIE Conference 2014)' 총장 라운드테이블이 3월 19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깨어 있는 고등교육을 향하여(Towards Conscious Higher Education)'를 주제로 열린 총장 라운드테이블에는 아태지역 7개 대학 총장과 25개 대학 부총장, 19개 대학 국제교류처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조인원 총장의 기조발제, 라운드테이블 순서로 진행됐다. 조인원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대학은 생존을 향한 노력과 함께 대학의 궁극 목표인 인간가치에 관한 관심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아태지역 고등교육 환경의 도전과 기회, 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의 성찰, 대학의 학술연구와 사회공헌의 균형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대학이 더 나은 인간의 미래를 위한 학문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경을 넘는 교육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탱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됐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

헌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4년 10월 21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원을 돌파했고, 2014년 10월 21일 현재 25억 2,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 조성 금액 : 2,518,581,206원
- 참여 인원 : 2,543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18호

지난 5월 18일, 경희가 개교 65주년을 맞았습니다. 개교일을 기념해 경희의 열과 전통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재조명하고 대학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 함께 일궈야 할 미래비전을 논했습니다. 구성원과 함께 대학의 미래를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희미래리포트'와 '경희미래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이번호 뉴스레터에서는 경희미래리포트와 경희미래위원회, 개교 65주년 기념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대학의 핵심가치 부문을 인정받은 대학평가 결과도 소개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학평가에서 그간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목표로,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와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학술의 탁월성에 주력해온 경희의 노력이 성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sd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